

법공양 페이지

관음종

지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 *
 제작됩니다. 법공양면은 약간의 심비부담으로 ... *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 *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 ... *
 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

역대종정

관음종의 개조인 태허 종정 대종사는 1905년 9월 25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1928년 경성 예비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의 상해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한을 달래다. 1929년 25세에 조선불교선교양종 교정이며 선암사 3대 강주인 경운스님에게 계를

중을 상대로 2년간 포교활동을 벌였다.

1957년 일승불교현정회를 조직, 법화계스님들의 분과를 막고 법화신앙의 종문을 열고자 노력했다. 스님은 한중불교친선회와 한일불교친선회의 교원으로 추대되어 불교의 국제적 교류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일제하 묘각사 창건후 전법 사찰 중창 불사 크게 일으켜

태허종사 대천스님

받았다. 4년간 구도정진한 뒤 중국 산서성의 이름있는 절을 두루 참배, 큰스님들을 만나고 1939년 귀국하여 서울 종로구 송인동에 묘각사를 창건하고 포교에 전념했다. 1951년 피난중 경상도 상주에서 백화암이라는 초암을 짓고 '법화경'을 정독하며 치열한 수행을 6년간 계속했다. 그 뒤 서울로 돌아와 탑골공원에서 대

공로로 1971년 정부로부터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1979년 6월 24일 문하에 3천 수계제자와 2백여명의 법제자를 두고 세수 75세 법남 50년의 일기로 열반에 드셨다. 대비후 1백28과와 사리가 나와 묘각사에 사리탑을 세웠다.

종정 대종사의 뒤를 이어 1980년 백상 경조 대종사가 2대 종정으로



◇초대종정 태허 대종사

추대되어 불교재난관리법이 폐지될 때 따라 5차에 걸쳐 종단총회와 중



◇4대종정 대천 대종사

진회의를 거쳐 1988년 8월 9일 종정을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으로 변경했다.

1989년 3월 4일 철은 대종사가 3대 종정으로 추대되었다. 스님은 89년 8월31일 종정원에서 세수 85세 법남 69세로 열반에 드셨다.

현 종정 운호 대천 대종사는 1991년 4대종정으로 추대됐다. 공주군 계룡면 양화리에서 태어난 스님은 7세에 금산 보석사에서 소용준스님을 은사로 삭발, 13세때 공주 신원사에서 응암선사에 의해 득도했다.

그뒤 스님은 마곡사에 금오선사로 부터 구족계를 수지, 마곡사 불교강원 대학교를 나와 조선불교 교

정으로 부터 대대 법계를 풍수했다. 스님은 1946년 대대 법계를 풍수 받은 뒤는 산 관음사에 주석하면서 사찰 중창에 앞장서 현재의 대지 1천여평을 확보, 대웅전을 새로 짓는 한편 묘사 60여평 종각등등의 불사를 일으켰다.

스님은 평소 제자와 신도들에게 "만유 법계가 성주귀공의 원리에 적응, 그 실체가 없음이라도 한 그루 과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종성교화를 하고 또 그 길을 걷는다. 비록 만상의 실체가 허상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나 존재하고 있는 동안은 주어진 일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서포고

◇관음종이 발행해온 정기간행물들.



'법성' - 신행길잡이 50호까지 발행
 '백련' - 7년동안 펴낸 포교 소책자
 '불교시보' - 90년부터 불교대중화 선도

대한불교 불암종을 모태로 한 관음종은 천오백년 역사를 이끌어온 민족의 종교로서 불교의 새로운 이해와 노력, 새로운 신앙문화 조성으로 불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1964년 창종이후 '위대한 종정 태허선사의 뜻을 받들어 1973년 1월 첫 정기 간행물 일간 '법성'을 창간했다. 관음종은 법성을 통해 민족과 사회의 눈이 되고 등불이 되는 건전한 신행의 길잡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불교의 참된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는 법화경의 사상을 널리 펼치며 법성은 1977년 특집기념 50호까지 발행되었다. 뒤이어 1983년부터는 격월간으로 간행되는 '백련'지를 창간하고 1979년 열반한 태허선사의 가르침과 법화경의 사상을 연재 했다. 또한 관음종 신도들의 신행에 대한 상담교리를 마련하는 등 신행포교로서 확장, 불자들의 신행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했다. 1964년 창종이후 '위대한 종정 태허선사의 뜻을 받들어 1973년 1월 첫 정기 간행물 일간 '법성'을 창간했다. 관음종은 법성을 통해 민족과 사회의 눈이 되고 등불이 되는 건전한 신행의 길잡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고화사업

영산대재·이웃돕기·국제학술회등 개최 을 연수원건립등 사업50건...중흥 박차

지난해 창종 30주년을 계기로 종단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꾀하고 있는 관음종(총무원장 이흥파)이 올해 들어 다양한 사업과 함께 부처님의 대승적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원력을 모으고 있다.

창종이래 중흥 선양을 위해 진력 해오면서 세계평화, 나라의 안녕, 남북통일, 신도들의 안전 기원을 담아 온 관음종이 전 지역에 교선을 전개하며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다.

85년부터 87년까지 연이어 정부관계자와 종교 1만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국영령 영산 대법회'를 봉행한 관음종은 이 기간에 '수륙방생법회'와 '아시아 게임 성공기원' '88올림픽 성공기원' 법회를 봉행하고 국운 상수를 올렸다.

아시아 평화와 국제평화를 위해 관음종은 89년 제1회 '국제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한데 이어 92년 제2회 대회를 개최하고 불교해외교류의 전기를 마련했다.

두차례 '국제 보살계 수계식'에는 한국·일본·중국 대덕스님과 사부대중 125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관음종은 현대사회와 불교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관음종은 90년부터 94년까지 매년

마다 '현대사회의 신행과 불교 보살운동' '현대사회의 신행과 68리밀의 실천' '현대사회와 불교신행' '현대사회의 불교신행과 법화경 정신' 등을 주제로 한일 양국 고승 대덕과 학계 저명 인사가 참석한 '국제 학술 강연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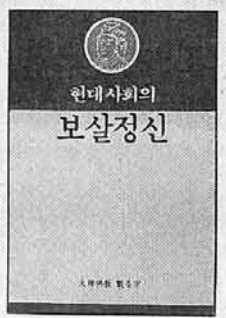
또한 관음종은 91년 온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전 엑스포 성공기원 대법회'를 비롯 94년 '서울 정도 600년 기념' 나라꽃 민속 행사와 함께 '6.25 제44주년 호국영령 추모 대법회'를 봉행하는 등 시의적절한 종단 정책을 폈다.

이외에도 관음종은 서울시민을 위한 기관법회, 남북평화통일기원 및 영산대재, 국가제단 천도제, 관음장학금 지급,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해 불발총포에 앞장서 왔다.

올해에도 관음종은 제6차 국제 학술 강연회와 제 3회 국제 보살계 수계식을 개최해 국제 불교 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관음종은 각종 세미나 개최와 교화사업, 한강 연등제와 연수원 건립 등 50여개 사업을 계획하고 올해를 종단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보살정신



오계·육바라밀 실천 '보살정신' 등 담아

관음종은 창종 30주년을 기념해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불교와 불교신행, 보살의 역할등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했다.

오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현대사회와 육바라밀의 실천·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보살불교·현대불교의 신앙과 법화경의 정신 등 한·일 석학들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모아 놓은 이 책은 자비와 지혜를 보다 명확히 밝혀 이를 지표로 더욱 정진, 수행하는 길이 대한불교의 보살사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표



◇이혜웅 스님 ◇정법륜 스님 ◇김공익 회장

총 정 김대천	재무부장 김경철
사서 김성진	사회부장 김성원
원로위원장 이혜웅	감찰부장 김화엽
위원 박종영	조직부장 이종현
김명우	포교부장 정법성
신경봉	종무위원 진동화
조혜경	총회의장 정법륜
박삼우	부의장 신무분
장영원	정춘담
김자원	사무국장 지법정
총무원장 이흥파	교육원장 김동렬
홍무부장 김지섭	수교부장 홍지복
교무부장 황범명	역경부장 오혜원

전국종무원

〈교구 종무원〉

서울 직할 종무원
인천 종무원(홍문사·정법륜)
경기 종무원(천은사·곽덕암)
부산 종무원(법성사·김동렬)
경남 종무원(세원암·이운강)
서부·경남 종무원(송원사·박승원)
경북 종무원(용흥사·김법화)
충북 종무원(백운사·황범명)

신도회

〈전국 신도회〉

회장: 田田 김용직
부회장: 곽진용
사무국장: 김인택
여성위원장: 윤보덕심(윤희정)

축

인천 광역시 승격

인천은 우리 나라 개화의 전진기지이며 21세기를 향한 세계화의 교두보가 될 도시입니다. 3월 1일자로 강화·김포·옹진군 등이 인천시로 편입됨에 따라 시역이 서울시보다 1.5배나 더 크게 확장되었으며 앞으로 영종도의 국제공항과 송도의 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우리 나라 제2의 도시로 발전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인천 광역시 불교연합회의 모든 성직자들은 한국불교의 중흥과 인천지역 불교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전국의 인천만 불자들 앞에 서원합니다.



인천 송도 흥문사 대웅전 내에 봉안된 목조후불탱화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탑.
 (032) 865-1133~4

인천불교 연합회 조직표

원로: 유해운, 박승담, 한구하, 홍현록, 박용삼, 이운강

회장 정법륜 (인천 흥문사 주지)

고문: 김홍복, 현기홍, 장대은, 김무칼, 방지하, 임승산, 이형관

수석부회장 김덕웅
 상임부회장 김홍계
 홍무부회장 유우경
 교무부회장 석돈원
 재무부회장 이기태
 사회부회장 홍일학
 호계부회장 최창배
 기획부회장 용원삼

조직부회장 우원경
 홍보부회장 박현진
 여승부회장 김덕환
 감사 이종현, 최석호
 사무총장 김홍계
 총무부장 박법수
 교무부장 이무초
 저무부장 박삼보

사회부장 홍하춘
 호계부장 임혜원
 기획부장 임현국
 조직부장 박일초
 사업부장 구보각
 홍보부장 현경원
 여승부장 한법린

자문위원: 주선웅, 장준섭, 이도해, 장현성, 이민구, 정득환, 신무분, 이자신, 박효산, 최광원, 서수익, 석선일, 지원중, 석호림, 조혜우, 구희림, 이상연, 백일승, 박선재, 신덕운

이 사: 김일우, 지법정, 박연귀, 신관용장, 이경수, 조범호, 오진공, 박원근, 김능화, 석도진, 김보천, 이대현, 장운경, 한화용, 고윤희, 이옥선, 김해공, 이복승, 정각심, 박화진, 김수명, 백래일, 김복순, 일광성, 만법심, 정도심, 정원담, 김혜중, 백연화, 박법기, 김순자, 석승안, 최금자, 최원성, 김정남, 이자원, 서남선, 김재수, 신법정, 대명화, 박효산, 칠성화, 김해관, 반야화, 안규봉, 박주봉, 최태래, 보문행, 조완경, 윤대우, 김경봉, 강보성, 원만행, 강로수, 고정래, 장민애, 홍해명, 조옥춘, 석박암, 진정순, 원 당, 김점숙, 김묘연, 김 정, 유흥자, 방승산, 이승우, 정정국, 양명순, 김옥희, 채갑순, 강보원, 안경래, 위형심, 윤일원, 오보현심, 이재한, 공구담, 최연수, 배동환, 김정각, 정현우, 황진법, 유춘관, 양명순, 이문암, 만덕화, 한영선, 주명자, 김정호, 원주식